

白費로 自然保護 書信啓蒙운동

山火防止・山林・鳥獸保護와 水力發電轉換을 絶紆

執念의 환경오염 迫放운동가 大阪居住 梁 健 默씨

浪 香



일본大阪에 거주 (日本國大阪 浪速局 私書函23)하는 교포 梁健默씨는 숨은 自然保護운동의 실천가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는 지난 83년 경 부터 수시로 본협 회장앞으로 일본에서 入手되는 세계각국의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자료를 보내주고

있다. 최근에도 8월24일 발신인이 찍힌 그의 主唱이 앞뒤로 담긴 인상적인 綠色편지 봉투가 본회사사무국에 배달되었다.

이번에는 오는 10月 東京에서 처음으로 개최기로 決定된 地球環境保護를 主題로한 「地球環境保全國際議員 프오람(廣場)」에 關한 消息과 酸性雨對策을 促求한 朝日新聞社說, 無秩序한 慰樂性開發을 批判한 讀賣新聞社說, 朝鮮의 「체르노빌」原子發電所의 3年前事故로 住民이 대피한 白露西亞共和國의 3個被災地區에 國家가 保護區를 만들어 追跡調査키로했으며 이地區의 植物, 魚類, 動物이 放射能에 의한 異常과 影響이 나타나 앞으로의 變化를 追跡調査할 것이라는 최근의 신문 자료도 보내주었다.

앞에서 印象的이라고 指摘한 그의 편지봉투는 發信人住所·姓名과 受信人 住所姓名欄을 除外하고는 모두가 그의 主唱口號로 桴차있으며 受信人姓名欄에는 貴下만 油印되고 受信人 住所欄엔 大韓民國만 印油된 것을 보면 그의 啓蒙對象은 모두가 母國人임을 엿볼수 있다.

연한 녹두色종이로 만든 봉투의 앞면에는 짙은綠色

바탕에 白色陽刻으로 「自然이 破滅될때 人類도 滅亡한다. 早害水害는 天災만이 아니다. 國土綠化, 自然愛護, 水資源確保」 짙은 綠色잉크로 「森林과 山林은 貯水池요, DAM은 調整池임. 山林虫害막아주는 鳥獸類保護키 爲하여 全國土 無期限 禁獵區制實施하라」 黑잉크로 (自然保護憲章遵守) 아래에는 TEL(攄)0722-61-1483 電番이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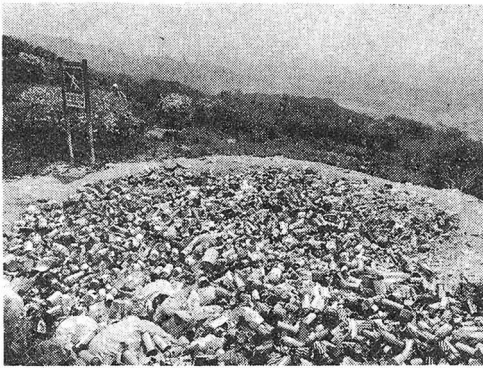
봉투의 뒷면 上段은 붉은 잉크로 「發電은 火力(原子力)에서 水力으로 再轉換을 (1970年以來 提唱) 原子力發電 安全神話?는 崩壞」 그 아래에 小活字로 「美國 THREE MILE ISLAND其他 各國 發電所事故가 立證」이라고하고 역시 붉은 色으로 「山火注意」(百年·千年 걸려 기른 나무도 불타버리면 빈들된다)는 口號가 함께 들어있다. 봉투中間쯤에는 진한 綠色잉크로 「山林 育成으로 水資源確保하면 水力發電 ENEGY를 우리代에 造成 增加시킬수 있으며 永遠持續이 可能함」 「落葉 歸根」(枝葉은 떨어진 자리에서 거름이 되어야 나무는 자란다) 맨아래 쪽에는 짙은 綠色바탕에 흰자로 「自然을 尊重하고 自然과 和睦하며 人類가 破壞한 自然을 辯償치 못하면 第一먼저 公害被害를 받는것은 文明國人인 우리들이다」란 警世的인 主張을 신고있다.

한편 白費로 이러한 弘報啓導活動을 하고있는 梁씨는 언젠가 한번은 本誌編輯者에게 보낸 편지속에 「國土綠化 自然愛護·早害水害는 天災만이 아니다」란 口號를 둘레에다 넣고 가운데는 산과 숲 날아가는 새를 그린 圓型스티카를 넣어 보냈으며 그때 한국일보사가 報道한 野生動物愛護(汝矣島廣場의 出勤길 車道에 뛰어난 갸투리를 避해가는 場面)의 사진과 記事를 日本에서 보고 크게 感動하여 複寫해서 보내주기도 했다. 그의 自然愛護에 對한 執念은 어느 누구도 本볼수 없을 만치 旺盛하며 情熱的인 것이다.

번함없는 健勝과 活動을 빌면서(8.30.編輯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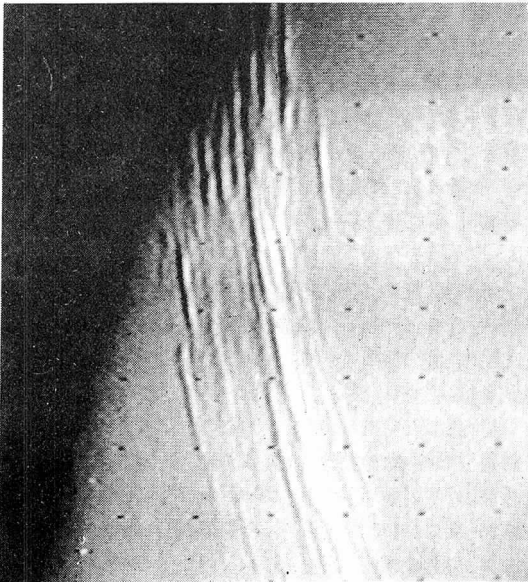
쓰레기로 덮힌 德裕山の 한봉우리 휴대식량外는 안갖고 가야하는데.....

덕유산국립공원의 香箱峰 주변, 철쭉꽃으로 물들어 야할 곳에 빈강통과 각종쓰레기가 무지한 등반객에 의해 버려져 우리의 식수원을 이렇게 썩게하고 있어 계몽과 함께 강력한 단속책이 촉구된다. (忠南論山군鍊武邑東山2동 김명운씨 提供·6.19 東亞日報 11面)



▲쓰레기장으로 변한 덕유산국립공원의 한장면

보이저2号, 光速으로 보낸 “海王星의 새털구름”
數十億km에 걸친 探査끝내고 宇宙의 迷兒로
지난 12년동안 우주항해를 계속해온 美無人宇宙



▲사진 : 보이저2호가 8월 24일 늦게 美 패사다나 제트추진 研究所에 보내온 海王星의 새털구름(주름살 부분) 사진, 光速으로 電送된 이 사진은 여러단계의 영상처리작업을 거쳐 만들어졌다. (AP聯合-8.26. 中央日報)

探査船 보이저 2号는 89년 8월 25일 낮 12시 56분 (한국시간) 太陽系 최후의 目的地인 「海王星」에 가장 가까이 近接, 探査信號를 보낸후 海王星의 트라이톤 衛星을 거쳐 歷史的인 太陽系探査를 終了하고 永遠한 宇宙迷兒의 길로 들어섰다.

보이저 2号는 이날 海王星의 푸른 구름層으로부터 4천95km 以内地点에 到達, 海王星에 가장 가까이 接近해 信號를 보낸후 海王星의 트라이톤 衛星을 지나 數十億km에 걸친 太陽系探査를 끝내고 宇宙로 사라졌다.

日本人的 平均壽命 여전히 世界 1位 89년에는 半年정도 더늘어날 予想

○...88년 日本人들의 平均壽命은 87년에 비해 약간 내리긴 했어도 여전히 世界 1 위라고 일본정부의 보고서가 지난 8월 10日 발표했다.

日本厚生省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일본 男性의 평균수명은 전년보다 0.07세가 단축된 75. 54세, 女性은 0.09세가 단축된 81. 30세로 나타났다는것.

日本人의 平均수명이 줄어들기는 男性의 경우는 5年만에, 女性의 경우는 8年만에 처음인데 이報告書는 그理由를 지난해 2월 노년층에 감기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또 금년에는 지난 5월까지 死亡率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에 男女모두 평균수명이 반년정도 늘어날것 같다고 전망했다. (8. 12. 濟州신문)

建設業界入札비리의 斷面

212개 업체로부터 낙찰가의 1% 갈취

○...서울시경은 8월11일 각종 建設공사 경쟁입찰에 개입, 建設업체로부터 낙찰사례금, 이른바 「떡값」을 뜯어온 자칭「建設協會 自律班」회장 金顯斗씨(51. 폭력등 전과15범·서초구 방배동거주)와 조장 趙元鍾씨(40·폭력전과 10범·동작구 사당동거주) 등 4명을 폭력행위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金씨등은 88년 2월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 삼중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럭키개발, 三益건설등 국내 2백12개 建設업체로부터 낙찰가의 1%정도를 갈취해 왔다는것.

이는 建設업체입찰비리의 斷面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衆論. (8. 11. 每日經濟)